

# 고승

한국불교  
종단 70년

## 선불교 중흥... 세상의 정신적 스승

19세기 말 조선에는 근대화의 물결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물결은 일제 침탈이라는 격랑으로 바뀌었다. 당시 불교도 이런 시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허 스님은 정혜결사를 주장하며 선풍(禪風)을 진작시켜 일제 시기 불교의 정맥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됐다.

경허 스님을 한국불교의 중흥조로 꼽는 이유도 여기 있다. 경허 스님의 법은 제자 해월·수월·월면(만공) 스님에게 이어졌고, 이 같은 명맥은 면면히 현대 한국불교로 계승됐다. 오늘날의 한국불교를 만든 것은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가기 위한 스님들이 구도열과 정법 수호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원력과 열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사회를 이끌어간 정신적 스승인 고승들로 화현됐다.

이에 본지는 해방 이후 근현대사에서 큰 족적을 남기고 입적하신 고승들의 면면을 간략히 정리했다.

### 선사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의 선맥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은 만공 스님(1871~1946)이다. 경허 스님에게 전법계를 받은 만공 스님은 수덕사를 중심으로 40여 년 간 선 수행을 지도하며 수좌들을 이끌었다. 또한 왜색불교로부터 한국불교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선학원 창립을 주도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구하 스님(1872~1965)은 일제의 근현대사에서 변화하는 교단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다. 1911년 통도사 주지로 취임한 이래 통도사가 전통사찰로서의 사격을 갖추 수 있도록 건물들을 중창하고 옛 유물들을 수집해 보존하는데 앞장섰다.

근현대 선지식인 해봉 스님(1874~1956)은 늦은 나이에 출가했지만 제법 선원을 돌아다니면서 수행과 설법에 집중했고 이내 이름을 널리 알렸다. 남장사 조실로 있으면서 최초의 비구니 강원 '관음강원'을 열기도 했다.

함암 스님(1879~1951) 역시 경허 스님의 전법 제자로서 만공 스님과 함께 일제 강점기 한국불교를 이끈 선지식이었다. 1941년 불교 총본산으로서의 조계종이 결성되자 초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특히 함암 스님은 6.25 한국전쟁 당시 공비 소탕을 위해 오대산에 불을 놓으려 할 때 상원사를 지켜낸 일화로도 유명하다.

해암 스님(1885~1985)은 100세가 넘도록 묵묵히 참선 정진에 몰두하면서 수행자로서 본모습을 잃지 않은 인물였고 더욱이 덕숭총림의 초대 방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을 제정하며 한국 선종의 법맥을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한 선지식이었다.

효봉 스님(1888~1966)은 와세다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판사를 지내던 중 독립 운동가들에게 중벌을 내리는 데 회의를 느껴 출가했다. 1954년 평화운동의 주역으로 불교 정화를 이끌었고, 1962년 통합종단 초대종정으로 추대됐다.

동산 스님(1890~1965)은 선·율을 겸전한 선지식이다. 용성 스님을 은사를 출가한 스님은 천불선원에서 3년 결사를 마쳤다. 1954년 전국비구승대회에서 효봉·금오·청담 스님과 비구 대표로 이를 이끌었고 종정에도 선출됐다.

고봉 스님(1890~1961)은 현대 한국 선불교를 대표하는 고승이다. 해봉 스님과의 만남으로 출가한 스님은 파계사에 이르러 개오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1919년 3월 8일 '대구 사간'을 일으켜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50년 공주 마곡사 은적암, 아산 봉곡사, 대전 북전암, 서울 미타사 조실을 역임했다. 제자로는 한국불교 해외 포교의 선구자 승산 스님이 있다.

만해 스님의 유일한 제자로 알려진 춘성 스님(1891~1977)은 거침없는 언행과 행동, 평생을 무소유로 일관했던 스님으로 세상에 더 회자됐던 선승이다. 후학들에게 수행자의 본분은 무소유에 있음을 강조했고 스스로 이를 실천하고 살았다.

경봉 스님(1892~1982)은 1925년부터 30년간 통도사 양로연불만일회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1953년 통도사 극락국선원 조실로 추대됐다. 82세부터 시작한 극락암에서의 정기법회는 90세가 되는 노력에도 시자의 부축을 받으면서도 법좌에 올랐으며, 매 회마다 1000여 명 이상의 대중들이 참여했다. 한시, 시조, 서예, 서화에도 조예가 깊어 다양한 작품을 통해 대중을 교화했다.

금오 스님(1896~1968)은 경허·만공 스님의 법맥을 이어간 고승이다. 경허의 선풍은 해월·수월·만공·함암 스님에 의해 드날렸고, 보월 스님을 거쳐 금오 스님에 이르러 선림(禪林)을 이뤘다. 1954년에는 교단 정화의 선봉에 나서 비구대회 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전강 스님(1898~1975)은 치열한 구도 행을 보여준 선사였다. 1914년 해인사에서 출가한 전강 스님은 예산 보덕사·정혜사에서 피를 쏟고 머리가 터져가며 10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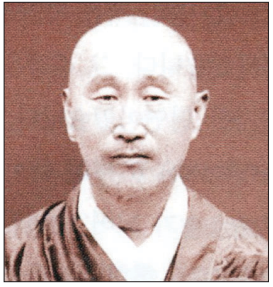
### 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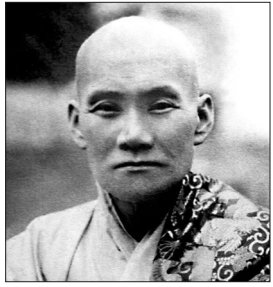
만공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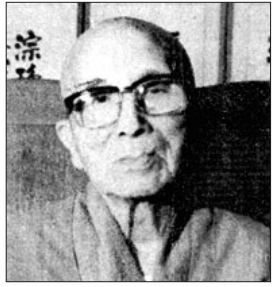
구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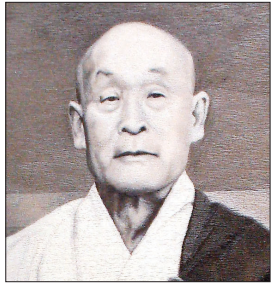
해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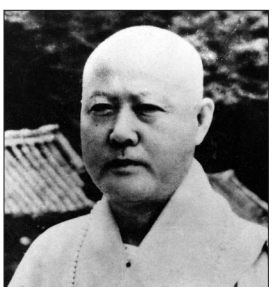
함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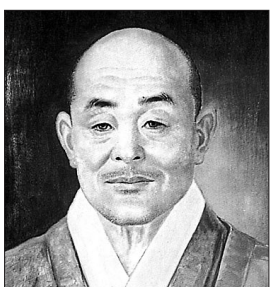
해봉 스님



효봉 스님



동산 스님



고봉 스님



춘성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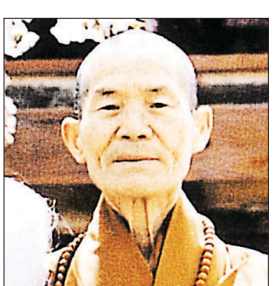
경봉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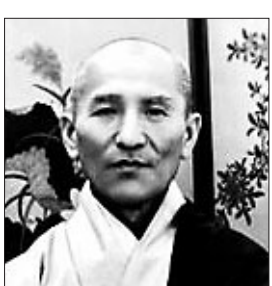
금오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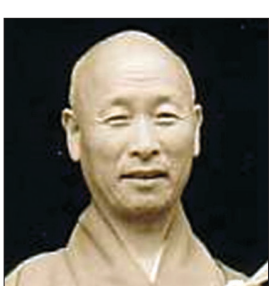
전강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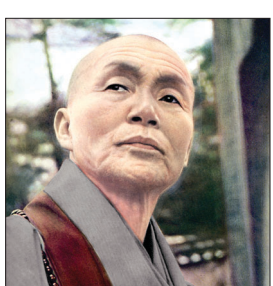
고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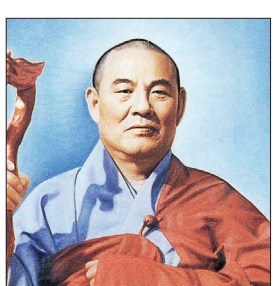
백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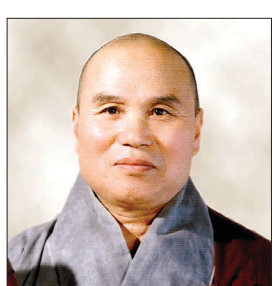
구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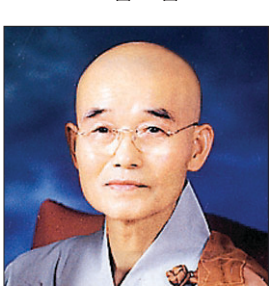
청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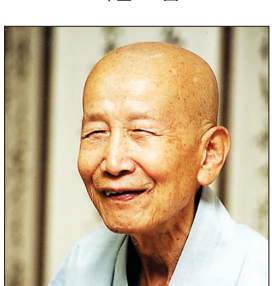
항국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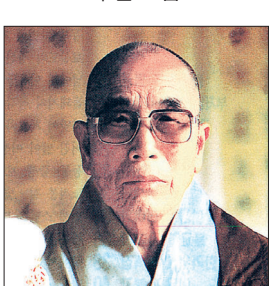
성철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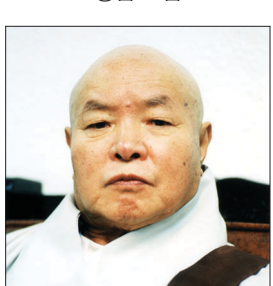
해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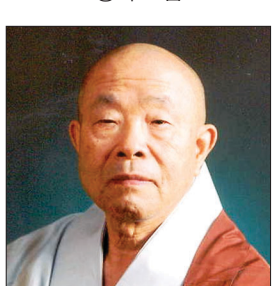
서웅 스님



월하 스님



원담 스님



법전 스님

동안 용맹정진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통도사 보광선원, 법주사 복천선원, 김천 수도선원, 광주 자운사 등의 조실을 역임했다. 인천 용화선원장 승담 스님이 법제자다.

고암 스님(1899~1988)은 절저한 수행자 이면서 인욕과 자비행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고승이다. 1967년 고암 스님은 효봉 스님의 입적으로 공석종인 조계종 종정에 추대됐지만 고사하다 수락했다. 상좌가 20살이 넘으면 존대말을 썼고, 공양주를 도맡아 하는 등 항상 하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다.

백안 스님(1901~1988)은 1935년 거사의 신봉으로 금강산 마하연 석우 선사 회상에서 안거 후 여러 선원에서 정진하다 3년 뒤 경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경봉 스님의 법통을 이어 받는다. 그 뒤 종립학교의 육성과 후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동국학원 및 원효학원 이사로 재직했다.

구산 스님(1909~1983)은 출가 이후 송광사와 백양사, 통도사, 해인사, 금강산 등을 돌며 장좌불와 수행을 계속하면서 끊임 없이 '이렇고'를 의심했다. 스님은 '칠바라밀 요일'이라는 독특한 수행 체계를 만들어 매일매일 목표를 정해 생활불교를 실천할 것을 불자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함께 70년대부터 해외포교를 강조해 미국 등지에 송광사 분원을 설립하는 가 하면 송광사에 국제선원을 개설하기도 했다.

법전 스님(1902~1971)은 봉암사 결사를 비롯해 평화운동을 이끌며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했던 고승이

다. 조계종 종정,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불비니 한국협회 총재, 동국학원 이사장 등의 소임을 맡아 한국불교 재건에 총력을 기울였다.

항국 스님(1912~1979)은 경허·해월·운봉 스님으로 이어지는 법통을 이어 받았다. '남자를 제정하는 데에는 항국만한 스님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한국불교의 선풍을 진작시키는 데 기울였던 스님의 노력은 대단했다. 법제자로는 현재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있다.

성철 스님(1912~1993)은 한국 근현대사 있어서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고승이다. 동산 스님 문하에서 수학하며 독도한 성철 스님은 파계사에서 장좌불와 8년 정진을 하는 등 끊임없는 구도열을 보여줬다. 1967년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으로 취임하면서 대중들에게 100일 법문을

설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81년 조계종 제7대 종정으로 추대되었으나 추대식에 참여하는 대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어를 발표했다.

성철 스님은 평소 제자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잠을 적게 잘 것, 말하지 말 것, 책을 보지 말 것, 간식을 먹지 말 것, 돌아다니지 말 것 등을 권했다. 스님 자신도 청빈하게 생활하며 소금기 없는 음식을 먹고 작은 암자에서 평생을 살았다.

봉암사 결사에 참가했던 해암 스님(1920~2001)은 이판과 사판을 아우르는 선지식이었다. 1994년 종단 개혁에서 애중심의 사표가 됐고, 1998년 종단 사태와 관련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렸던 전국승려대회에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종도들의 갈 길을 제시하기도 했다. 1999년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취임해 한국불교를 이끌었다.

**순례가 시작되는 곳**  
www.ajetour.co.kr  
SINCE 1999  
**아제여행사**  
AJE  
☎.02)730-4008  
{ 구광국대표 010-3048-4008 }  
{ 구경모이사 010-2747-0908 }

**히말라야 고요왕국**  
복복 지수 1위! **부탄 순례**  
부탄의 마하야 순례, 사자의 새 둥지, 알파카 수컷의 땅, 티베트  
★확정★  
출발일 3월23일/4월10일/5월28일/6월19일

THE SILK ROAD  
중앙아시아를 횡단하는 고대의 동서 교통로  
다코마로드 **실크로드 6일**  
돈황-우루무치-트루판  
출발일 4월13일

출발일 3월23일 **중남미 3개국 11일**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6인 출발기준 (4명회차) ₩679만

하늘과 맞닿은 영혼의 땅! **티베트 8일**  
출발일 5월7일/28일/6월21일/7월27일/8월30일

**티베트, 그라산 9일**  
이탈리아, 카파도키아 파르라리, 아테네, 미소스섬  
출발일 3월23일/6월5일

출: 3월29일 **구화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지장보살(99cm), 천하비경 황산, 불해탈승상

출발일 5월4일 **중남미 3개국 12일**  
페루+아르헨티나+브라질  
8인 출발기준 ₩759만

**수미산·구계왕국 16일**  
라싸, 시가제, 마나사르보호수, 수미산, 구계왕국  
출발일 5월29일/6월13일

간헐성기 **구화산·황산 4일**  
출발일 4월9일/4월30일 ₩99만원

출: 3월29일 **봉의 도시 곤명 차마고도 여강6일**  
곤명, 대리, 여강, 상그리라

**발칸3개국 & 동유럽 1개국 8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출발일 3월09일/5월21일

인도네시아 **보루부두르대탑 5일**  
화엄경 성지  
심법계통과 선계통자 구법이야기  
출발일 3월24일/4월21일/5월28일/6월23일/7월7일/8월18일/9월1일

**왕궁불탑의 나라 미얀마**  
왕궁-비간-헤호  
출발일 3월 21일

출: 4월14일 5/19, 6/22 **보현보살상주처 아미산 5일**  
성도, 아미산, 낙산대불

**민족의 영 4대산·장승 5일**  
출발일 7월 21일, 7월 31일

**경정의심 대산도 2일·3일**  
출발일 수시출발가능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초대산/운강석굴/행궁사

출: 6월5일 **동티베트불교 야칭스10일**  
출발기준:월/수/금  
진정한 티베트여행,만여분의 스님들의 수행처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레를지

출: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증래선사, 불광선사, 자제궁각회

출: 3월29일 **본의 도시 곤명 차마고도 여강6일**  
곤명, 대리, 여강, 상그리라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초대산/운강석굴/행궁사

출: 6월19일 **몽골5일(초원문화와 라마불교)**  
울란바타르-에르덴-레를지

출: 9월3일 **대만 공승제 5일**  
증래선사, 불광선사, 자제궁각회

출: 3월29일 **구화산·황산·보타산 순례6일**  
지장보살(99cm), 천하비경 황산, 불해탈승상

출: 5월29일 **오대산 운강석굴5일**  
분수도량 초대산/운강석굴/행궁사